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미래 먹을거리 기반 닦아

권위 벗고 소통행정 ... 공직사회에 변화 새바람

민선 6기 1년 <1>광주시

민선 6기 광주시의 시작은 과거와는 전혀 달랐다. 첫 시민운동가 출신의 윤장현 광주시장은 과거와 현재의 반성을 통해 광주 미래 발전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윤 시장은 우선 권위를 내려놓고, 시 행정을 시민과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시민 시장'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기존 관료 시스템에 익숙해 있던 공직사회는 혼란을 겪었다. 시민 중심의 체제 개편은 조직 내 일부 반발을 불러왔고, 이는 행정경험이 없는 윤 시장의 과오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때 윤 시장이 꺼내든 카드가 '고백과 감성'의 신(新)리더십이었다. 본인부터 의전 등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잘못된 행정을 시민들에게 고백하고 고쳐나갔다고 약속했다. 조직 내부는 직원들 직접 꺼내주거나, 손 자주 잡아주기 등 격의 없는 감성적인 행동으로 접근했다.

한편으로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쌓은 중앙 인맥들을 적극 활용한 예산활동, 지역 핵심 현안사업 챙기기 등에 주력했다.

일할 때만큼은 감성 리더십을 잠시 내려놓고, 강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특

히 시민 생활이나 소외 계층과 관련한 행정에 있어서는 먼저 현장에 뛰어든다는 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윤 시장은 최근 전국을 뒤덮은 메르스 사태 초기에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자체 방역 시스템을 가동해 아직까지 '메르스 청정 지역'을 유지해 내고 있다.

윤 시장은 취임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첫 맞이한 국비예산 확보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자 전년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신규사업(58건·1455억원)을 확보, '비 행정가 출신'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도 했다.

윤 시장은 또 자동차와 에너지, 그리고 문화와 광주의 미래 3대 먹을거리 산업으로 확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높이고 일부에선 행정경험이 전무한 윤 시장이 "단 하나라도 제대로 하겠느냐"며 냉소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가시적인 성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우려'는 '기대'로 바뀌고 있다.

그 선두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산업 벨리 조성 사업이 이끌고 있다.

민선 5기 내내 매달렸지만 실패했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에는 내년도 국비 예

산마저 확보하는 큰 성과를 냈다.

윤 시장은 특히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높은 임금 탓에 국내 투자를 꺼린다는 분석에 따라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연봉 4000만원대의 광주형 일자리를 제안, 정부는 물론 다 자치단체와 관련 기업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정부도 올해 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트너로 현대자동차 그룹을 연계해줬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소차 등 미래형 친환경차 산업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윤 시장은 요즘 빛가람 혁신도시에 동자를 둔 한전과 연계한 에너지 벨리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에너지 산업과를 신설하는 한편 최근 한전 등과 함께 에너지 벨리 기술원도 설립했다. 시는 투자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고,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해 에너지 신도시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도 대거 창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윤 시장에게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만들기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과제다. 윤 시장은 특히 광주가 아시아 문화의 중심도시이자 허브가 되기 위해선 중국과의 관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친중국 우호환경을 조성 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메르스 진정국면...보성 확진자 완치



광주·전남 관리자 150명 줄어

보성 격리 마을 오늘 해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메르스(중동 호흡기 중후군) 확산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보건당국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12면>

전남 첫 확진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메르스 관련, 자택격리 등 관리 대상자도 하루새 150명 이상 감소하면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A(64)씨가 지난 19일 오후 국가 지정격리병원 입원 12일 만에 퇴원했다.

입원 당시 발열과 폐렴 증세를 보였던 A씨는 음압시설이 갖춰진 격리병동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두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 거주 마을 17가구 주민 32명도 최대 잠복기(14일) 마지막 날인 이날 자정을 기해 마을 출입통제와 자택격리가 해제돼 생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보건소 직원의 1대 1일 관찰 속에 주택 안에서만 활동했으며 시급한 농사일은 공무원 등이 대체작업을 벌였다.

최대 잠복기가 지나면서 전남 지역 메르스 관리 대상자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일 관리 대상자는 자택격리 176명, 능동감시 245명, 타시도 병원 입원 6명 등 모두 427명이었으나, 21일 181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날 자정이 지나면서 23명(자택격리 10명, 능동감시 10명, 타시도 병원 입원 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광주시도 21일에만 35명이 격리 해제되는 등 한 때 95명에 달했던 관리 대상자가 32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윤현석·박기용기자 chadol@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꽃 단장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일(7월3일)을 12일 앞둔 21일 광주 서구 화정동 U대회 선수촌 내부에 꽃 단장이 한창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법무장관 고흥 출신 김현웅 내정

차정부 사회 통합 의지 반영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후임 법무부 장관에 고흥 출신인 김현웅 서울고검장(사진·56·사법연수원 16기)을 내정했다.

<관련기사 2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황교안 신임 총리의 제정을 받아 법무장관에 김 서용고

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장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장관에 호남 출신 인사를 지명한 것은 사회 통합 및 호남 배려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과 집권 중반기 검찰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자로 꼽혀 발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 대변인은 발탁 배경과 관련, "김 내정



자는 법무행정과 검찰 업무에 뛰어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겸비했다"며 "사회 전반의 부정 부패를 척결하고 범죄를 확립하는데 책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진태(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장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검찰총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김 총장은 연말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혁신위 내일 광주서 쇄신안 발표 천정배·구 민주계 등 신당 창당 가시화

야권의 신당 창당 논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23일 광주에서 내용을 쇄신안에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첫 번째 쇄신안에 현실과 비전을 제대로 담지 못할 경우, 야권의 신당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1일 광주 북구 금수강호 호텔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광주·전남 지역 기초단체장들을 만나 "갈등의 프레임이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을 찾아가고, 그것이

국민 및 당원과 함께할 때 우리는 수평정당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22일 시민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100인 원탁회의 등을 통해 쇄신안을 마련, 23일 광주시청에서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신당 창당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지난 20일 광주 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 변한 것은 없으나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또 천 의원 진영과 함께 하고 있는 염동원 전 의원은 "9월 신당 창당이 가

시화될 것이며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구 민주계 진영 등도 신당 창당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흐름 속에 새정치연합 당내 움직임도 분분해지고 있다. 9월 신당설과 함께 벌써부터 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전 현직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계파 갈등이 진정되지 않고 혁신위의 활동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며 7~8월 중순부터 신당 창당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최권일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국민 요정 손연재 출전

D-11
광주 U대회 UNIVERSITY OF GWANGJU 2015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개장일 : 2015.7.3